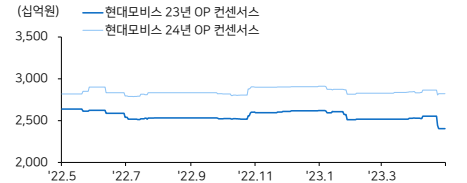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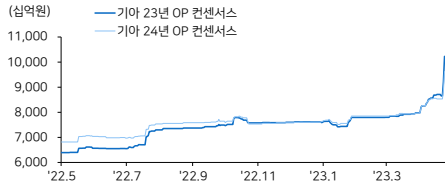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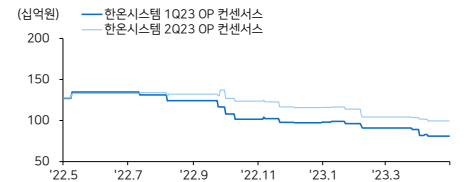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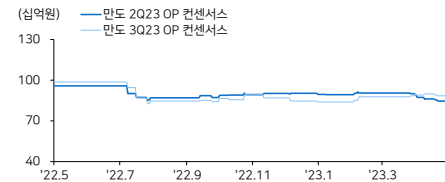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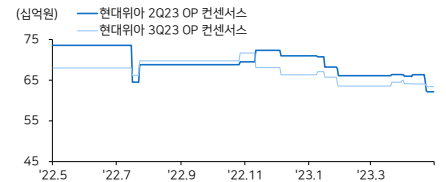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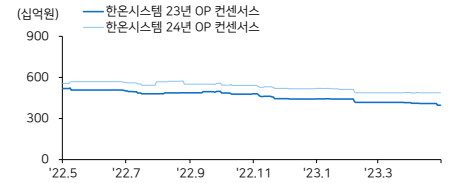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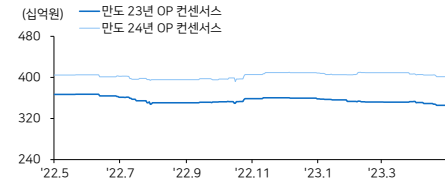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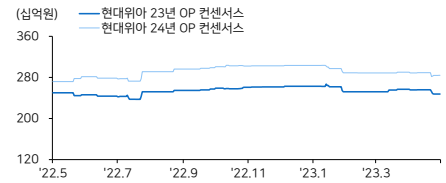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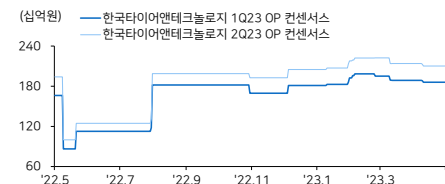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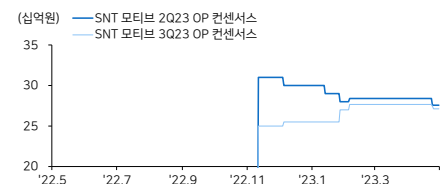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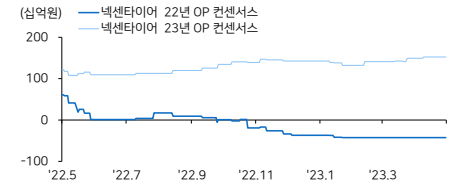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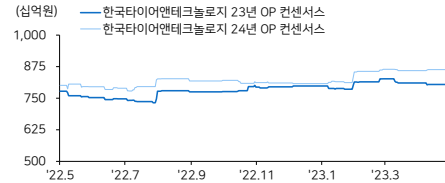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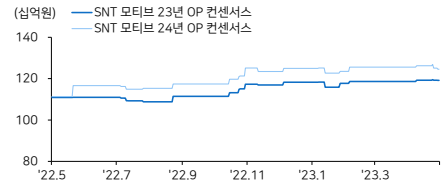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車 안 영화관 시대 개막... 현대차·기아, 월 7700원에 OTT 서비스 시작 (조선일보)

현대차, 기아는 차량 내 왓츠, 웨이브 등 OTT 콘텐츠를 다음 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시네마 기능을 이용하려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커넥티드 카 서비스 앱에서 '스트리밍 플러스(월 7700원)'에 가입이 필요.
<https://bit.ly/3N5Bz5S>

중고차 시장이 뜰까?...7~8월 현대차·기아 본격 진출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기아가 올 3·4분기 내에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 정부가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들에게도 시장 진출의 문이 열렸기 때문. 롯데 등 주요 대기업도 중고차 사업 진출 준비 중.
<https://bit.ly/3qIRu51>

Tesla is rumored to show new Model 3 on Thursday (electrek)

블룸버그는 Tesla가 이번 목요일 Model 3의 디자인 리프레시 버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도. 일본 머스크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내 FSD 베타 출시와 신형 Model 3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상황.
<https://bit.ly/300MnE6>

Ford CEO says EV cost parity may not come until after 2030 (Reuters)

포드 CEO 짐 팔리는 BEV 제조 비용이 2030년까지 ICE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다수 업체에서 EV의 자체대 모델이 2020년대 후반에 생산될 때 ICE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
<https://reut.rs/3MJJlpX>

'2조3951억 성과급' 현대차 노조, 임금협 요구안 타결될까 (이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시작과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년 연장을 주장,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https://bit.ly/300MeVV>

HL만도, '2450억 투자' 멕시코 공장 증설...기아 등 현지 고객사 납품 확대 (THE GURU)

HL만도가 한화 약 2,451억원을 투자해 멕시코 자동차 부품 공장 증설을 추진. 기아 등 현지 고객사 납품 확대를 위한 공급망 강화 지원.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대한 신규 수주 물량 확대도 꾀함.
<https://bit.ly/3f0Oq7h>

Elon Musk visits China, meets CATL chairman (TechNode)

일론 머스크는 중국 방문에서 사업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미중 갈등 반대 의사를 표명. 또한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직후 CATL 회장 로빈과도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f0H27D>

Volkswagen won't join China discount battle "at any price," COO says (Reuters)

VW COO는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 가격 할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VW의 시장 지위는 충분히 강력하며, 초점은 판매량이나 점유율에 아닌 수익성에 있다고' 발언.
<https://reut.rs/3N3j7la>